

‘군공항 이전 국가 지원’ 명시 특별법 개정 주목

박근혜 의원 올해 4월 대표발의
이전지역 지원·종전부지 개발비
정부 재정·정책 지원 근거 명시
지난달 법률안 심사소위에 회부
6자 TF 이전 합의로 속도 기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지원을 명시하는 특별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주도 6자 협의체가 광주 민간·군공 항 무단 통합이전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에 놓였던 특별법 개정 논의도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4월 ‘광주 군공향 이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3년 4월 제정된 **현행 특별법에**
국가 지원 확대와 각종 특례 규정을 보완·신설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에 따른 재정 부담이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의 정책·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계비, 토지보상비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이전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히 지원하는 특례사업을 시행하고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하천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기반시설 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에 대해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이전지역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도시기금의 우선 지원 근거 역시 신설됐다.

특히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한도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포함돼 있다.

군공항 내 미군시설의 경우 정부가 직접 협상과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고 소요 비용은 군공항 대체시설 기부 시 사업 시행자와 정산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광주시는 향후 미군시설의 이전부터 개발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면에 계속 /변은진 기자



고사리 손으로 모은 ‘사랑의 동전’

18일 광주 북구 매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송년 나눔을 위한 사랑의 동전모금함 개봉식에서 직원들과 코리아유치원 아이들이 1년간 모은 우유팩 저금통을 개봉하고 있다. 올해로 11번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행사에서 모인 모금액 95만6천400원은

/김애리 기자

연말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여객기 참사 179명 희생자 잊지 않겠습니다”

광주시, 26-27일 1주기 추모 행사

공연·음악회 등 유가족·시민 위로

광주시는 오는 26·27일 오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12·29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
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추
모하고 유가족과 사고현장 지원에 헌신한 봉사자
들, 지역민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26일 오후 7시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진혼, 기억'을 주제로 추모공연을 선보인다. 사회는 영화배우이자 국악인 오정혜씨가 맡는다.

공연은 망자의 천도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광주시립창극단의 '진도씻김굿'으로 시작한다. 이어 국민 소리꾼 장사익이 무대에 올라 '썰레꽃', '꽃구경', '아리랑'을 노래하며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피날레는 이정호 작곡가의 국악 레퀴엠 ‘진혼’이 장식한다. 광주시립관현악단과 광주시립합창단, 광주시립창극단, 광주소년소녀합창단, 목포시립합창단, 순천시립합창단 등 광주·전남

지역 6개 예술단체가 함께 무대에 올라 합동 공연을 펼친다. 공연은 6세 이상(2020년생 포함) 관람자로 전석 무료다. 티켓 예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유료 회원 선(先) 예매가 시작되며 일반 회원은 19일 오후 2시부터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예매할 수 있다.

27일 오후 5시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이 '179명의 이름을 기억하며'를 주제로 추모음악회를 연다.

이번 공연은 참사로 희생된 179명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을 떠올리는 모든 이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연주회는 ‘슬픔→기억→위로→연대’의 흐름으로 구성해 각자가 고인을 떠올릴 시간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음악과 낭독이 하나의 호흡으로 이어지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을 조용히 전한다.

첫 무대인 사무엘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로 절제된 선율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을 담아 애도의 시간을 연다.

세 번째 무대에서는 작가 황석영이 고인을 위한 글을 직접 낭독하며 관객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생각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이끈다.

마지막 무대는 구스타프 말리의 '교향곡 3번 제

악장'으로 장식한다. '사랑이 나를 살게 한다'는 문장으로 알려진 이 곡은 말리 작품 중 가장 내밀한 정서를 담고 있으며 고인을 기리는 마음과 서로를 향한 조용한 연대를 음악으로 풀어낸다.

27일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2018년생) 관람
할 수 있으며 전석 무료다.

티켓 예매는 18일 오후 5시부터 유료 회원 선
예매가 시작되며 일반 회원은 19일 오전 10시부
터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1인 2매까지 예
매할 수 있다.

윤영문 광주예술의전당 전당장은 “참사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질문들이 남아 있다”며 “이번 공연이 그 마음들 가까이에서 조심스럽게 놓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기수희기자

Today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활성화 대안은? 6면

키워드로 보는 명화 이야기-‘뒷담화’ 14면

투수 '올러' 재계약 고민하는 이유는? 16면

지구촌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센스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20℃



난방온도
1℃↓
월 5,150원



온오프시
실천하기
월 10,300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월 5,391원



안쓰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월 778원

전기요금 절약하고 캐시백 받기

조건 주택용(가정용) 전기 사용 고객 중 2개월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절감

신청 포털 '한전에너지캐시백' 검색 / 한전ON(QR) 접속 / 한전사업소 방문

지급액 절감량 따라 30~100원/kWh



가스요금 절약하고 캐시백 받기

조건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중 전년 대비 3% 이상 절감

신청 포털 '도시가스 캐시백' 검색 / 공식 홈페이지(QR) 접속

지급액 절감량에 따라 50~200원/m³

기간 '25년 12월~'26년 3월



탄소중립 실천하고 인센티브 받기

방법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누리집' 회원가입 → 에너지 사용량 감축(전기/상수도/도시가스) → 인센티브 수령

신청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누리집' 회원가입 → 상세정보 입력 → 회원가입 완료 및 신청(회원 탈퇴 시까지 참여)



 기후에너지지원본부
  산업통상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KEEN 한국환경공단
  KOMIPO 한국중부발전
  KWP 한국서북발전주식회사

 한국에너지연구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새마을운동중앙회
  에너지시민연대
  KEN 한국 기후·환경 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에너지연구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새마을운동중앙회
  에너지시민연대
  KEN 한국 기후·환경 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